

해외출장(뉴질랜드 - 오클랜드, 웰링턴) 요약

부서 : 경제사회연구실

자료제공 : 김 승 연

작성일 : 2023년 2월 15일

게시요망일 : 2023년 3월 01일

제목 : [해외출장노트] 웰빙예산의 서울 적용성 파악을 위한 뉴질랜드 출장

※ 서울연구원은 2012년 10월부터 해외출장보고서를 발췌, 요약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1) 출장 목적

- 약자와의 동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은 서울시 약자 관련 사업에 대한 지표·지수 개발 및 예산-성과-연계체계 구축 등을 통해 민선 8기 '약자와의 동행'을 성공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핵심은 '약자동행'의 개념 설정 그리고 '지표와 예산' 간의 연계방안임
- 본 연구를 뉴질랜드 출장은 다음의 2가지를 목적으로 함. 첫째, 웰빙예산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웰빙예산을 수립 및 실행하는데 참여한 연구기관(빅토리아 대학교), 정부기관(재무부, 총리실), 입법기관(뉴질랜드 의회), 실행기관(오클랜드 남부 웰빙위원회)의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함. 이를 통해 웰빙지표와 예산을 연계하는 방안, 웰빙예산의 적용 과정을 파악하여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둘째, 이민자, 청년,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인터뷰하여 '약자' 개념 정의와 기준 수립에 활용함.

2) 출장 내용

(1) 웰빙경제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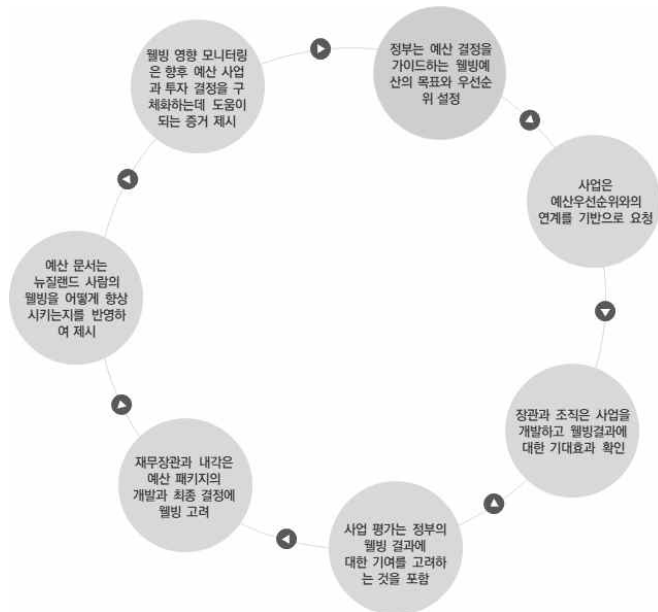
- 웰빙경제의 학술적 아이디어는 경제학에서 시작되었으며,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와 아마르티아 센(Amartya Kumar Sen)의 이론에 영향을 받음.
- 초기 뉴질랜드에서 '경제' 논의를 진행하다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웰빙으로 이어짐
- 2013년 웰빙경제에 대한 관심은 미미하였으며 재신다 아던(Jacinda Ardern)은 웰빙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투자 접근에 집중. 즉, 단순히 '돈'이 아니라 현재 돈을 투자하여 향후에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고, 특히 미래의 사회환경에 대해 고려

(2) 웰빙예산의 효과 분석

- 웰빙예산은 OECD의 11개 영역별 비용 효과 분석을 하며 social investment agency라는 별도의 조직을 통해서 운영
- social investment agency에서는 각 부처에 11개 영역의 impact를 돈으로 환산(달러로 가치 환산)해서 제출 요구하며 최종 결정은 재무부에서 담당
- 뉴질랜드에서 웰빙예산의 비용효과 분석을 요구하자 현재는 impact lab이라는 새로운 산업으로 발달

(3) 웰빙예산의 순환과정

- 웰빙예산은 정부의 예산결정 가이드에 따른 웰빙예산의 목표와 우선순위 설정부터 시작되며 순환과정을 거침



(4) 웰빙예산과 기존예산의 차이

- 웰빙예산이 기존의 예산과 다른 점은 크게 5가지로 설명 가능. 첫째, 웰빙의 목표는 여러 예산에 대한 의사결정의 가이드라인이 됨. 둘째, 기관은 새로운 지출 계획을 설정함에 있어서 웰빙 분석의 수행을 요청 받음. 셋째, 재무부의 LSF(living standards framework)와 he ara waiora를 웰빙예산에 적용함. 넷째, 주요 공개 예산 문서에 웰빙 분석 및 보고서를 포함함. 다섯째, 재무부 웰빙 보고서를 4년 주기로 발표함.

3) 정책 시사점

- 웰빙지표를 관리함에 있어서 측정가능한 데이터 확보가 중요함.
- 웰빙예산의 주요 판단근거(데이터 수집, 통계분석, 경제역량)는 서울시가 동행사업 기준을 설정하고 판단하는데 있어 주요 기준으로 사용 될 수 있음.
- 웰빙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웰빙수준이 낮아질때는 정치적 판단으로 최종 결정하며 재무부는 성과를 판단하는 역할보다 웰빙 예산 배정에 집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서울수도 동행예산을 설정함에 있어 사업의 비용효과를 분석하고 해당 사업이 약자 동행 사업으로 판단될 때 예산을 배정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성과 파악은 별도의 조직에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제공 및 문의처 :
경제사회연구실 김승연(02-2149-1241)